

'사굴산파' 개산정신 아직도...



가람의 장면들



△인제 한계사 터 삼층석탑(보물 1276호). 그 앞에는 약왕보살 공양상이 있었을 것이 분명히 짐작할 석조대지가 남아있다.

인제 한계사터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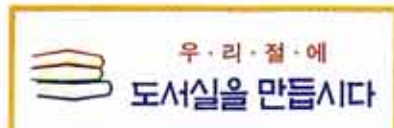
설악산 한계령이 시작되는 곳. 행정구역 상으로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장수대가 있다. 불췌 숲은 기동같이 깎아지른 암벽이 마치 장군과도 같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골짜기가 좁고 깊은데다 높은 절벽까지 솟았으니 한낮에도 늘 그늘이 지는 곳이다. 장수대 휴게소에서 북쪽 산위를 걸어 오르면 산정상이에 갑자기 양지바른 평지가 나타나니 여기가 바로 한계사 옛터다. 몇 개의 기단 흔적과 석탑의 흔적이 앙상하게 서있는 곳이다.

기단·초석등 잔해만 남아 건물·장식 없지만 자유로운 조형정신에 감동

빈터엔 가람 연 선사들의 불심이...

건물은 지어지는 순서의 반대로 허물어져 내린다. 가장 나중에 세워지는 지붕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돌로 쌓여진 석양 건축의 폐허에는 벽체와 기둥의 일부라도 남아 원초적이기는 하지만 입체적인 공간이 남겨진다. 그러나 나무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한국 건축의 폐허들은 기단과 초석을 남기고는 모두 사라져 버린다. 나무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썩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건축의 폐허란 대개 잘해야 기단과 몇 개의 초석들이 대지에 흔적을 남기는 평면적 폐허로 남게 된다. 폐허에 서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가는 듯한 묘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 남은 것이 적다고 가치와 감동까지 적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부수어지면 부수어진 대로 감동의 깊이는 더해진다. 건물에 색깔을 하고 장식을 다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에 행해진다. 따라서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빨리 없어지는 것이 아들

장식된 것을 알려주는 조형이다. 이집이 언제 창건됐는지, 언제 폐허됐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는 기록은 없다. 남겨진 유구로 미루어 대략 신라 말에 창건됐으며, 여러 차례 화재로 다시 지어 지기를 거듭하다가 조선 중기에 폐허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시대의 가람이면서도 일정한 배치형식을 찾을 수 없다. 금당 옆으로 부속건물 터들이 놓였지만 금당과 열이 맞은 것도 아니다. 당시의 가람들은 회랑을 두르고 화우가 대칭되는 기하학적 배치형식이 일반적이었지만, 한계사 터에는 회랑의 흔적도 없고 대칭적인 형식도 없다. 대지가 불규칙하고 좁아서였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절의 창건정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모든 구축을 거부하며 참다운 진리에 도달하려고 했던 구산선문의 자유로운 조형정신이었을 것이다. 한계사의 폐허는 이 처음의 정신, 가장 근본적인 건축적 생각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건축적 공간이다. 비록 건물이 사라져버린 폐허지만 건축적 정신으로 가득한 장소다.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과 함께 법등을 밝히고 있다. 동산반야회는 본지가 지난 3월부터 펼치고 있는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동참, 법당 문고만들기에 나섰다.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동산반야회는 교재를 비롯 교리·경전류를 우선적으로 구비한다.

동산반야회 문고설립 범등 밝혀 불교교양대 학생·동문 등 범공양 나서

이밖에도 불자들의 신앙증진을 위한 신행서, 교양서 등까지 다양한 도서를 비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산불교대학 재학생을 비롯 동문들을 대상으로 도서를 기증받고 있다. 김재일회장은 법등밝히기에 가장 먼저 <정보의 세계>(불교시대사 권. 장휘옥 지)와 <세계의 종교>등 만다라 총서 20권 등 50권을 기증했다. 이 가운데 만다라총서 시리즈는 불교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유병렬 동산불교대학 총학생회장도 재학생 33명도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 소장도서를 기증했다. 20일까지 기증된 도서는 벌써 1백여권이 넘었다. 이밖에 대다수의 회원들이 동참의 뜻을 표해 도서실 만들기 범공양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문고형 도서실만들기에 취지를 같이한 동산반야회 회원들의 도서법공양은 구입하거나 가정에서 잡고 있는 불서를 기증하는 형태다. 먼저만 쌓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불서를 원하는 불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절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은 가정에서 소장된 불서를 살리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김명길에 앞섰던 책이나, 꼭 권하고 싶은 책을 구입해 기증하기도 한다. 동산반야회 도서실만들기는 무엇보다 불자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편 동산불교대학은 6년전부터 군법당과 교도소를 비롯 미국 사해를 등지에 불서보내기 운동을 펼쳐왔고 6월경 경도불교대학을 설립할 예정이어서 도서법공양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기증 문의(02)732-1206

“교양교재 활용에 적합” “소장불서 거의 다 기증”

도서 50권 기증 김재일 회장



캠페인 적극 동참 유병렬 총학생회장



본사의 캠페인에 뜻을 같이해 문고형 도서실을 꾸미고 있는 김재일회장(동산반야회)은 선뜻 도서 50여권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정보의 세계>(불교시대사 권. 장휘옥 지음)는 김회장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불서다. “장소에 구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열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자들은 물론 일부 스님들까지도 신심이 결여돼 있습니다. 이 책은 열렬의 중요성, 방법 등 열렬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양대학의 교양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김회장은 <정보의 세계>를 불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꼽았다. 한편 김회장은 <정보의 세계> <불교교리> 그리고 <불자생활> 20권을 다른 사찰에도 도서관이 설립될 경우 비치할 수 있도록 본사에 위탁했다.

도서실 만들기를 적극 환영하는 유병렬 동산불교대학 총학생회장은 가장 김명길에 앞섰던 선시집 <형상에 달린 진면목>(장인 권. 박상문 지음)을 내놓았다. 유회장은 “이 시집은 대차대반한 부처님의 사상을 간략한 시어로 담아, 읽으면 읽을 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고 기증의 이유를 밝혔다. 유회장은 이밖에도 소장 불서중 교양대에 필요한 책들은 동산반야회 도서실에 기증할 계획이다. 동산반야회가 재가불자교육도량인 만큼 도서실은 필수 사설이라고 강조하는 유회장은 “도서실을 통해 회원들간에 필요한 책을 나눠볼 수 있어 기쁘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 도서실이 동산반야회의 또다른 법당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불서기증자 명단
- 동산반야회 불서기증(33명) 70권
김화순 3권, 최낙구 2권, 이선자 1권, 윤주광 2권, 고영기 2권, 김동규 1권, 홍현상 3권, 엄기훈 1권, 이용일 2권, 박명순 3권, 최봉자 1권, 자유남 2권, 정인형 3권, 김중기 2권, 강영규 3권, 이재상 1권, 조화영 2권, 김영석 6권, 김정숙 1권, 이악중 3권, 배규호 2권, 김운하 2권, 최순심 5권, 최종철 2권, 임영선 1권, 류재창 2권, 임장수 1권, 육명자 3권, 박종갑 2권, 박상숙 1권, 이경용 2권, 강충석 1권, 강원호 3권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이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大韓佛教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장 대행
주지 혜원

사부대중 일동

-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 전화 : 사무처 (0343)472-3100 팩스 (0343)472-2746

● 국내지원 ●

- 한마을 공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신5-2 Tel : 0446-877-5000/0462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 광주지원 광주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51-17 Tel : 052-244-0884
- 대구지원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05-2 대광빌딩 7층 Tel : 053-426-2779
- 충북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25-342-6630/6639
- 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91-746-8163, 744-1321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 : 0562-275-316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1-259-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번지 Tel : 0391-651-3003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7-643-0643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31-284-1771

● Overseas Branch 해외지원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총리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 Fax : 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210N Catalina St. L.A.CA. 90004 Tel : 213-382-1711 / Fax : 213-386-8852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228 / Fax : 847-674-0812
- CANADA (캐나다 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50-3091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Fax : 54-11-4921-9286
 - Tucuman (투쿠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43 pattanavet Sukhumvit Soini Bangkok, Thailand Tel : 662-711-2005 / Fax : 662-391-6425